

윤활소식

SK (주)

‘임직원이 사업 아이디어 寶庫’

SK그룹이 임직원의 다양한 현장 경험과 창의성을 사업 아이디어 형태로 제안 받아 화제가 되고 있다.

SK그룹의 사업영역은 장치산업 보다 지식 정보 사업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직원들의 현장 아이디어가 중요한 경쟁력이자 성장 동력이 된다는 차원에서 SK그룹은 임직원을 통해 사업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모으고 있다.

그 동안 다른 제안 활동은 개선이나 혁신 활동이 기업들의 직원 아이디어 공모의 일반적인 형태였던 것에 비하여, SK그룹은 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업 아이디어를 공모한다는 차원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SK는 덧붙였다.

SK네트웍스는 올해 1월부터 「BI(Business Innovation, 사업혁신 아이디어)」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시행 1달여 만에 현재 1,100여건의 임직원 참여 아이디어가 모아지고 있으며, 향후 이사회와 경영층의 주기적 평가를 통해 단계별로 구성원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Full Business Plan'에 이르게 되면 실제 경영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SK건설은 「글로벌 벤처 비즈니스」 제도를 통해 임직원의 사업 아이디어를 경영에 적용하고 있다. 「글로벌 벤처 비즈니스」는 해외 진출 시 그 국가에 대한 임직원의 아이디어를 제공받아 검증을 통해 각 국가에

벤처 성격의 독립법인을 세워 신규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다.

별도 사업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해외 지사와는 성격이 다르며, 법인 설립 후 1년마다 수익성을 확인해 지속 여부를 판단한다. 이 제도는 철저한 현지화를 통해 해외 사업의 진입 장벽을 극복하고 해외 진출을 위한 사전 위험 요소 제거와 교두보의 역할을 수행한다.

SK건설은 2004년 태국, 2005년 쿠웨이트에 이어 2006년 인도네시아까지 총 3개의 현지 법인을 설립했으며, 실제 아이디어를 제공한 직원은 모두 현지에 파견되어 있다.

SK그룹의 양대 주력 회사인 SK주식회사와 SK텔레콤은 오래 전부터 구성원의 아이디어를 사업에 반영하는 제도를 운영해왔다.

SK주식회사는 1982년부터 「Idea 방」을 통해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2001년 이후 제안된 구성원 아이디어만도 80,460여건에 이른다. 구성원의 아이디어를 모아 실행된 대표적 사례로 '엔카' 사업을 들 수 있다.

2000년부터 시작된 국내 최초의 온라인 중고차 쇼핑몰인 '엔카' 사업은 당시 모인 임직원의 여러 아이디어 중 하나로, 이후 수십 차례의 워크샵을 거쳐 실제 사업에 반영한 사례이다.

뿐만 아니라 '자원절약 캠페인', '사회공헌 프로그램' 등도 현업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행되었고, 작년에 시행한 'Idea 공모'(2005년 11월21일~2005년 12월 21일)에는 총 1,805건이 접수되어 현재 이사회와 경영층에서 검토 중

윤활소식

이며, 선정된 제안은 실제 경영에 적용할 예정이다.

SK텔레콤도 임직원 인트라넷의 「Idea Zone」을 통해 현장 직원의 자유로운 의견을 받고 있으며, 3차례의 검토를 통해 실무부서에서 실시하고 선정자에게 포상을 주고 있다.

SK텔레콤의 주요 접수 내용은 '새로운 콘텐츠 및 서비스'와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이며 시행 이후 일 평균 6건 정도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SK케미칼은 「PMS(Project Management System)」, 워커히은 「Win Together」 등의 제도를 통해 현장 구성원의 목소리를 실제 경영에 반영하고 있다.

SK그룹은 이 제도는 임직원의 직무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조성함으로써 경영 참여 의식을 제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사업으로 연결시켜 나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도시락으로 행복 날라요

SK가 지난 달 사업 본격화를 선언하면서 '행복도시락' 지원사업을 함께 할 NGO단체를 공모한데 이어 시범급식센터 1호점을 열고 '행복도시락' 지원사업의 첫 발을 내디뎠다.

SK가 지원한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 1호점은 중구 신당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40평 규모에 조리실, 포장실, 가공실, 사무실, 휴게실 등을 갖추고 매일 결식아동 114명을 위한 행복도시락을 배달하게 되며 추후 결식노인

80명을 더 늘릴 예정이다.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 1호점에는 센터장, 조리장, 조리사, 배송기사 및 배송인력 등 14명이 일하게 되며 향후 결식노인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게 되면 인력도 6명 더 충원할 계획이다.

SK는 이날 성낙합 서울시중구청장, 강원용 실업극복국민재단이사장, 오세홍 서울시중구의회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남 SK자원봉사단장이 결식이웃 지원사업 협약식을 맺고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 현판 제막식을 가졌다.

이날 조정남 단장과 성낙합 청장, 강원용 재단 대표는 협약서를 교환하면서 급식센터가 자립할 내년 연말까지 시설비와 운영비용을 SK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중구청은 급식비, 자활근로 예산 등을 지원하게 된다. 이후에도 2009년까지 센터 운영비와 법인 운영비 등은 계속 지원하게 된다.

이 날 조정남 SK자원봉사단장은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늘 이렇게 첫 1호점을 개점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며, 결식이웃 해소와 소외계층 일자리 창출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이런 노력이 사회 전체적으로 확산되어 우리 사회의 어려운 소외계층에게 근본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생겼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SK는 1호점 개점 이후 계속 확산시켜 올 연말까지 23개 급식센터를 추가로 설립하고 내년에도 24개를 설립하여 전국적으로 총 48개 무료급식센터를 지원하게 된다.

또한 SK는 향후에도 이 사업을 전담할 별

## 윤활소식

도의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여 SK가 재정지원 및 행정지원을 통해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사업은 결식이웃을 돕는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사회공헌방식'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이며 '사회적 기업 모델'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SK는 지난 해 5월 소외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6대 프로그램을 발표한 이후 지속적인 후속작업을 통해 5개의 프로그램을 이미 시행 중이고 마지막 '행복도시락' 지원 사업을 개시함으로써 6대 프로그램이 모두 가동된 셈이다.

## LG-Caltex 정유(주)

### GS칼텍스 중국사업 첫발

GS칼텍스가 중국 사업에 본격 나선다.

GS칼텍스(주)(대표: 許東秀 회장)는 2월 18일(토) 중국 청도시 청도경제기술개발구에서 GS칼텍스 주유소 1호점 기공식을 열고, 중국 현지법인인 GS칼텍스(청도)석유유한공사의 현판식을 가졌다 밝혔다.

이날 기공식에는 GS칼텍스 허동수 회장을 비롯해 10여명의 회사 임직원이 참석했으며, 중국 측에서는 조우자빈(周嘉賓, zhou jia bin) 산둥성 대외경제무역청장, 장지에(姜杰

jiang jie) 청도경제기술개발구 상임위원, 위충(于冲, yu chong) 청도시 부시장 등 정부 유관기관 인사가 행사에 참여했다.

이번에 설립되는 주유소는 청도시 청도경제기술개발구의 중심부를 관통하는 교주만고속도로(jiaozohubay expressway)인근에 위치하며, 이곳에 주유소 병설 경정비점인 오토오아시스(autoOasis)와 자동세차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중국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또한, GS칼텍스(청도)석유유한공사는 GS칼텍스 중국사업의 전초기지로서 앞으로 중국내 석유류 제품 판매 및 주유소 설립·운영을 담당하는 중국 현지법인이다.

GS칼텍스는 중국진출을 위해 이미 지난 2003년부터 사업진출 방식과 사업영역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왔으며, 그 결과 중국측 기업과의 합작방식 대신 단독으로 현지법인을 설립한 후 이를 기반으로 중국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GS칼텍스는 법인설립 및 주유소 설립을 위해 총 500만 달러를 투자하며, 연말까지 청도경제기술개발구 등에 2개 이상의 주유소를 추가로 지을 계획이다.

이와 같이 GS칼텍스가 중국 진출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국내 에너지 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인 상황에서 아시아 에너지업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GS칼텍스는 앞으로도 그동안 국내에서 축적해 온 선진화된 고객관리 및 운영시스템을

윤활소식

바탕으로 중국 고객들에게 업계 최고수준으로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주주사와의 원활한 합의를 통해 해외진출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기공식에 참석한 GS칼텍스 허동수 회장은 "이번 주유소 설립은 GS칼텍스 중국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린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청도에서 가장 신뢰받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의 사회적, 윤리적, 환경적 책임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Oil(주)

새해맞이 북한산 등반 행사

- 김선동 회장, 투바이엠펙(Samir Tubayyeb) 부회장 등 간부사원 150여 명 참석
- 창사 30주년의 해 맞아 새로운 도약을 위한 각오 다져

S-Oil은 6일 북한산에서 김선동(金鮮東) 회장과 투바이엠펙(Samir Tubayyeb) 부회장을 비롯한 차장급 이상 간부사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해맞이 등반 행사를 개최했다.

S-Oil 임직원들은 이 자리에서 "올해는 우리 회사가 창립 30주년을 맞는 해로서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가장 경쟁력 있고 수익성 있는 석유회사, 글로벌 마케티더로 도약하

는 한 해로 만들어나가자"며, "향후 10년, 20년을 준비하기 위해 다시 한 번 변화를 주도해나가자"고 다짐했다.

소년소녀가장 초청 S-Oil의 "노란 음악회"

2월21일 구로청소년수련관에서 소년소녀가장 초청 공연

- 매월 1회씩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음악회 개최

S-Oil은 21일 서울시립구로청소년수련관 소극장에서 현악사중주단 콰르텟엑스(Quartet X)와 함께 서울지역 소년소녀가장 200여명을 초청하여 "제1회 S-Oil의 찾아가는 노란 음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에서는 평소에 접하기 힘든 정통 클래식과 우리에게 익숙한 영화음악 등 다양한 곡들의 수준 높은 연주와 함께 MP3등 각종 선물도 전달하여 공연장을 찾는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음악과 함께 하는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S-Oil은 앞으로 매월 1회씩 전국의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보호시설 청소년, 외국인 근로자 등 우리 사회에서 문화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이웃들을 직접 찾아가서 음악회를 열어주는 "S-Oil의 찾아가는 노란 음악회"를 계속 개최할 계획이다.

회사관계자는 앞으로 "S-Oil의 찾아가는 노란 음악회"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즐거움과 희망을 전해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합소식

한국환경자원공사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안내

**\* 용자규모 및 지원대상자**

지원분야	용자규모	용자지원 대상자	지원용도
시설자금	400억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사업자로서 동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사업자 단체 동법 시행령 제6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시설 생산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동법 제2조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 및 폐열을 회수하는 재활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재활용을 위한 장비·장치·설비 등의 제작·구입 설치비 및 건축비 재활용기능자원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기계 또는 장비나 재활용시설을 설계·생산하는 시설에 대한 제작·구입설치비 에너지 및 폐열회수와 관련된 재활용시설의 제작·구입 설치
기술개발 자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의거 자원재활용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	재활용기술개발을 위한 비용(기술개발인건비, 교육연수비, 견본및재료비, 기술도입비, 시험검사비, PILOT설치 및 운전자금, 기구 및 자재구입비)에 한함
폐기물 감량화시설 자금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감량화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환경부 고시 제2003-64호 규정의 분해성 합성수지 재질을 이용한 제품을 제조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폐기물의 감량화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장치·설비 등의 제작·구입설치비 및 공장건축비
경영안정 자금	300억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재활용사업자	재활용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원료구입비, 인건비, 공공요금, 연료비, 운송비, 시설정기검사 수수료, 폐기물처리비용, 기술도입비, 기술개발 시험검사비)에 한함
유통·판매 지원자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제품 판매사업자(리필 등 재사용제품을 포함한다)로서 일반제조상품을 금액기준으로 30% 이내 취급하는 재활용제품 판매사업자	제품 유통·판매에 따른 사업장 임대보증금 및 실내장식비(신규분에 한함), 매장대입비, 건축비

**\* 용자조건**

지원분야	대출금리	대출기간	1회 지원 한도액	상환방법
시설자금	연5.06% (변동금리)	3년거치 7년상환 (10년 이내)	0 50억원	거치기간 경과 후 매분기마다 균등분할 상환
기술개발 자금			0 4억원	
폐기물감량화 시설자금			0 시설 : 5억원 0 공장건축비 : 3억원	
경영안정 자금		2년거치 3년상환 (5년 이내)	0 10억원 - 최근 결산년도 매출액 이내,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 원에 의한 매출액 이내 - 창업 사업자의 경우 시설자금 용자신청액의 30%이내	
유통·판매 지원자금			0 2억원	

**\* 상담 문의**

- 전 화: 02-3153-0511, 0515
- 홈페이지: WWW.ENVIC.O.R.KR



한국환경자원공사 서울지사



윤활소식

폐기물적법처리 시스템 사용안내

폐기물적법처리 입증정보시스템  
Waste Manifest System

폐기물 적법처리 시스템 사용 안내문

□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www.wms-net.or.kr)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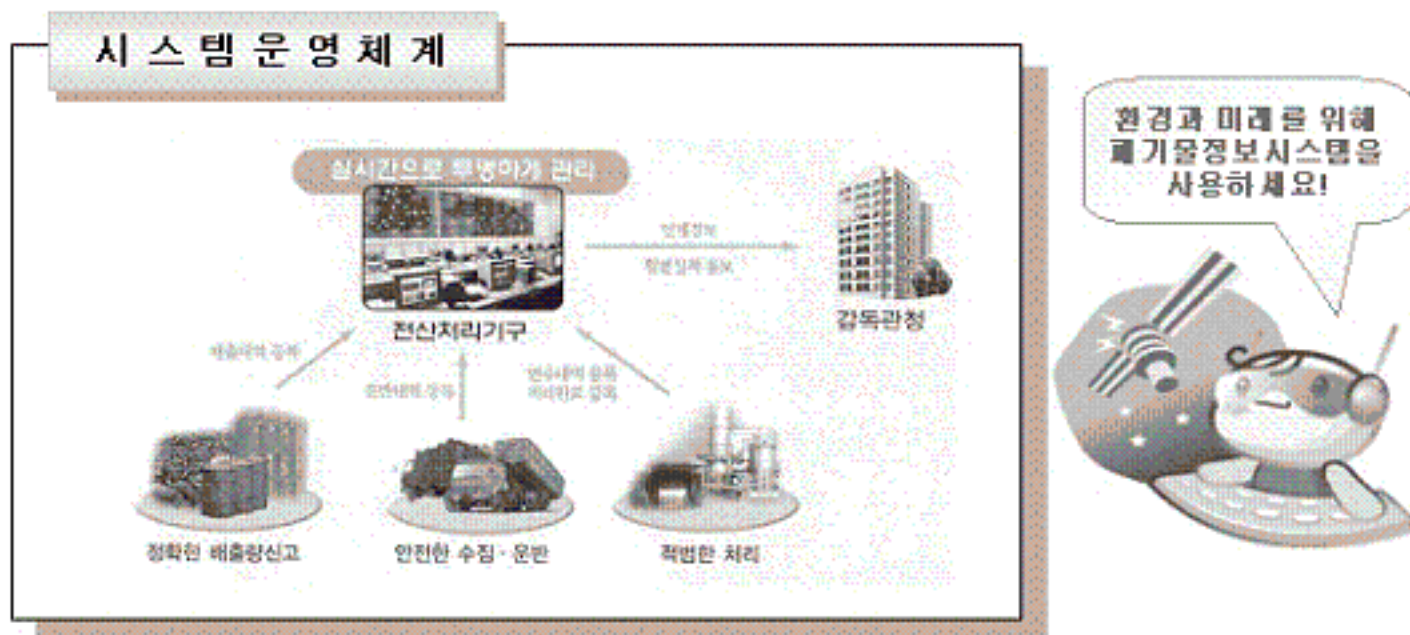
폐기물의 배출에서 운반 및 최종 처리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기 위하여 배출은 반처리하는 자와 행정기관 사이에 수작업으로 관리되는 폐기물인계서(종이)를 인터넷상의 전자정보 형태(전자인계서)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 시스템 도입 배경

**기존 전표제도** 폐기물의 발생부터 최종처리까지 처리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폐기물 인계서를 수기로 작성, 배출자·운반자·처리자·행정관청등이 각각 보관하고 있음

**문제점** 종이인계전표의 관리·확인·검토에 따른 복잡한 행정절차와 과도한 업무량 및 행정비용 소요로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함

**인계정보의 전산시스템 개발** 사업자와 행정기관 모두에게 편의를 주고 특히 폐기물의 배출에서 최종처리까지의 과정을 인터넷상으로 실시간 자동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윤활소식

□ 폐기물 적법처리시스템의 구성

<b>폐기물인계 관리시스템</b>	◦ 발생된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업체 까지 인계되는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전달되는지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
<b>폐기물인-허가시스템</b>	◦ 민원인이 폐기물인-허가업무 행정 간소화를 위해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인터넷 상에서 일괄 처리

□ 시스템 사용으로 얻는 혜택은 무엇인가요?

전산화를 통한 비용절감 및 행정간소화

- ❁ **친 환경적 입니다**
  - 친 환경적 기업이미지를 높여 줍니다.
- ❁ **업무가 쉽고 편리해집니다.**
  - 관리대장 및 실적보고가 자동으로 작성됩니다.
- ❁ **경제적입니다.**
  - 종이인계서 작성 및 우편발송 업무가 사라집니다.



□ 시스템 사용방법은 어떻게 배우나요?

➡ 환경자원공사는 시스템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b>동영상교육</b>	<a href="http://www.wms-net.or.kr">www.wms-net.or.kr</a> 에서 동영상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b>현장교육</b>	사용자 근거리에서 정기적으로 시행중입니다.
<b>온라인교육</b>	<a href="http://edu.wms-net.or.kr">edu.wms-net.or.kr</a> 에서 온라인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b>상시교육</b>	한국환경자원공사 서울지사에서 매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세한 교육 방법은 『사용자 교육 안내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문의 사항은 시스템 운영기관인 한국환경자원공사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시스템운영기관

**한국환경자원공사 서울지사**

- 전화번호 : 02-3153-0512~8  
- 팩스번호 : 02-3775-1061~2